



녹차, 커피, 홍차 등 차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장문자씨 가족이 직접 수집한 홍차 다기 등이 전시된 혜명다례교육원 지하 1층 티룸에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아들 정양석씨, 딸 은희씨, 장문자·정병만 부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온가족이 茶전문가...매일 '힐링茶談'

광주 혜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 가족

부모·자녀 5명 "은은한 향기속 소통해요"

항상 단아한 모습으로 차를 내던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머니의 차사랑은 딸과 며느리에게 이어졌고, 누나의 차사랑은 남동생에게 전해졌다. 아버지는 다기를 제작하며 가족과 함께했다. 차가 있는 풍경속에 살았던 손자·손녀들 역시 차에 익숙하다.

'삼대'가 모이면 차자리가 마련되는 건 기본이고 다담(茶談)은 가족의 일상이 되었다. 은은한 차 향기처럼, '가족사랑'은 점점 두터워진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혜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75) 원장의 가족은 모두 차와 인연이 있다. 장문자 원장과 며느리 이주현(49)씨는 전통 녹차, 들깨말 정은희(49)씨는 홍차 전문가다. 차에 가장 늦게 뛰어든 아들 정양석(47)씨는 바리스타다. 한국차학회 상임이사도 활동중인 남편 정병만(83)씨는 도자기 핸드 페인팅 작품을 직접 만든다.

광양이 고향인 장씨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차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가정의례, 붓글씨 등 전통문화도 함께 배웠고 원광대 차문화 경영학과와 동대학 동양학대학원 예다학과 전문과정을 수료, 탄탄한 이론도 갖췄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은희씨를 차 세계로 인도한 건 어머니였다. 차 관련 대학원이 성신여대에 처음 개설되자, 어머니가 공부를 권했고 원광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목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은희씨는 서양사와 세계사의 만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홍차에 눈을 돌리게 됐고 '홍차 이야기'(살림 펴냄), '차 한잔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오사다 사치코 공저) 등 전문서적도 출간했다.

직장생활을 하다 5년전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커피 마루'를 연 양석씨는 홍차를 공부하다 커피의 매력에

우리는 茶 가족  
어머니 녹차 전문가  
아버지 다기 제작자  
딸 홍차 전문가  
아들 커피 전문가  
며느리 녹차 전문가



빠진 누나의 권유로 바리스타가 됐고, 지금은 광주교대 등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시어머니 권유로 차공부를 시작한 아내 이주현씨 역시 목포대 박사과정을 거쳐 목포대 등에서 강의하며 차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1999년 문을 연 혜명다례원은 가족을 차생활의 중심이자, 차인(茶人)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지난 2002년부터 조카사위인 관화가 이철수의 그림을 표지 삼아 잡지 '혜명다화'를 펴내고 있다.

다례원 건물에는 보물같은 공간이 숨어 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티룸(Tea room)이다.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홍차 관련 다기들과 장식품, 정씨

가 직접 만든 도자기 수전점과 일본·중국의 차 관련 서적이 자리한 이곳은 은 은 뜻 차 박물관을 연상시킨다. 사연이 있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은희씨는 "차의 좋은 점은 맛과 향으로 마시고, 건강에 좋고, 대화를 이끌어주는 것"이라며 "바쁜 삶을 살면서 거기서 또 여유를 찾으려는 현대인에게 차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고 말했다.

한 건물에 녹차, 홍차,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가게 세 곳을 열고 가족들이 수집한 다기, 차 관련 서적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개인 박물관을 만드는 것. 정씨 가족이 요즘 꿈꾸는 '행복한 미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화학고 여수산단      한 허술한 재난관리체계

# 종합방재센터 17년 하세월

화학물질·독극물 관리 일원화도 시급

여수산단단지 내 화학공장 등에서 치명적인 원료 유출·폭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십 년 동안 곁들기만 했던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이번 대형 참사를 계기로 '화학고'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여수산단의 3원화된 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일원화 및 종합방재센터 컨트롤 타워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컨트롤 타워 설치 시급>=현재 여수산단엔 GS칼텍스·LG화학·여천NCC·호남석화 등 220개 기업이 가동 중인데, 이중 석유화학업체만 60개에 이른다. 주민은 물론이고 단지 내에 입주한 회사 직원들도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날지 몰라 걱정이다.

주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여수산

단엔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처, 정확한 조사, 완전한 피해복구 등을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고도의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지만, 컨트롤 타워 설치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년 재 표류하고 있다.

여수시는 그간 잇따른 대형 참사와 관련, 국가종합방재센터 설치 필요성을 관계당국에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시는 지난 1996년 처음으로 국가종합방재센터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필요>=여수산단 업체에서는 황산·암모니아·염산 등 유해화학물질과 휘발유·경유·벤젠 등 위험물질, 염소·포스젠 등 독성가스 등 모든 종류의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 맹독성 불산을 취급하는 대규모 공장도 있다.

여수산단에선 최근 3년간 총 26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80개가 넘는 개별법을 근거로 3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독성가스는 자치단체가, 위험물은 소방사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난 후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 공유, 조동 대응 및 지원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화학업종 성격상 공장 1곳에서 이들 물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사고 전 안전관리나 사고 이후 관련 당국간 공조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2·3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삼원화된 관리체계는 신속한 재난 대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재난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임문택·김창화 기자 mtim@

## 황우여 대표 "여수산단 방재센터·화상병원 서둘러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 최근 발생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폭발사고와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수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종합방재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험회의에서 "여수 산업단지가 대규모 산업단지임에도 유해화학물질 종합방재센터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화상환자는 긴급을 요하는데 여수 산업단지 부근에는 화상전문병원이 없어 환자를 광주까지 이송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대규모 산업단지에는 화상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에서 산업단지 긴급의료체계에 대해 잘 점검해 달

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사고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여수산단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장경찰관 1시간 반이 걸린다"며 "사고에 즉시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수산단 부근에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 의원 등 민주통합당 여수산단사고대책반도 같은 날 현장을 둘러본 후 "가스 등의 폭발 사고가 나는데도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 종합적인 재난방재체계를 설립하고 위기관리 시스템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주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HANBANG BIO | 一理

아름다운 태를 빛는 단 하나의 이치  
한방 탄력케어 | 일리

보습을 넘어 탄력케어까지!  
토탈에이지 바디로션

옛 여인들의 피부관리 비법과 아모레퍼시픽의 수십년간 축적된 한방바이오 과학을 담아 아름다운 태를 현대에 재현합니다